

인천시, '수산업 발전' 5년간 3370억 투입

인천시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370억원을 투입하는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살고 싶은 어촌, 함께 가꾸는 수산업'을 비전으로 '지역 맞춤형 명품 수산업 기반 구축', '풍요롭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 '미래가 있는 특화된 어촌개발·관광육성' 등 3개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60개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하게 된다.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수산물 건조기 지원,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어

업인 전문기술 교육 등 25개 사업,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구축·조성을 위한 수산 종자매입·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조업여건 개선사업 등 25개사업, 신성장 동력 어촌 개발·관광을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명품어촌어항 조성사업, 청년어업인 영여 정착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광주시, 무진대로 화단 제거 교통혼잡 해소

광주광역시 유스퀘어 건너편 광천터미널 정류소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를 무진대로 상에 분리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2년 화단 2개를 제거하고 시내버스 정류소를 방향별로 분리하는 한편 레드존을 설치해 교통혼잡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개선공사는 인근에 주상복합 건물 등이 들어서면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진됐다. 공사는 시공사가 맡아 3월까지 시행한다.

먼저 무진대로에 남아있는 화단을 제

거하고 도로 중간에 80m 길이의 버스유개승강장을 설치한다. 이 승강장에는 버스도착안내기(BIT),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한 ATM, 스마트폰 충전단자, 광대역 와이파이 등 스마트 시설이 포함된다.

또 주상복합 건물 진출입로 일대 인도를 도로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 기존 편도 8차선에서 9차선으로 확대한다.

이번 정류소 추가 설치로 시내버스와 택시 승하차가 분리되고 주상복합 건물 진출입로도 별도로 운영되면서 교통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봉채영 기자



완도군은 지난달 26일 완도교통, 고금여객, 신지여객 등 버스업체 대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완도군이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장보고대교 개통과 함께 군청~약산 당목 구간에만 적용하던 단일요금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그동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던 지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교통 복지 증진과 운수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에 지난 27일 완도군과 완도교통, 고금여객, 신지여객 등 버스업체 대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버스업체의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행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 버스업체는 운행 시간 준수는 승객에게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버스는 관내 전체 53개 노선에 28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이다.

/전남 완도=이제진 기자 wando1106@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0 | 해질 / 18:28

3월 4일 (월) 음력 : 1월 28일

수도권 날씨 16~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0/15, 동두천 1/17, 가평 0/16, 파주 1/16, 서울 6/16, 양평 2/16, 인천 5/13, 수원 4/15, 용인 4/15, 평택 2/15, 백령도 3/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장성군&산림청 90억 들여 모노레일·하늘다리 등 설치 휴양메카 축령산 '치유공간' 확충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접근·안전성 개선 등 2022년 조성

장성군과 산림청이 '축령산'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장성군은 지난 2월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한 '노령산맥권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장성 축령산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인 노령산맥권(축령산) 휴양치유벨트 사업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해 축령산 국유림 내 산림 치유시설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시설을 개선,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성군 또한 축령산 편백림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해 오고 있다. 편백을 중심으로 축제, 체험, 관광, 상품개발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축령산 편백 특구'로 지정받는데 성공했고, 지난해부터 축령산 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축령산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두 기관은 향후 축령산에서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할 때 편백숲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가족단위 및 노약자 들에게 불거



축령산 요가.

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축령산만의 특색있는 산림복지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가기로 했다.

그동안 축령산은 전국 최대 편백 인공조림지로서 장성군의 대표 관광지임에도 편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나 가족단위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겪어왔다. 장성군은 '장성의 보물, 축령산'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1년을 목표로 모노레일과 하늘다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장성군과 산림청이 각종 사업추진시 서로 교류 및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였으면 한

다"며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의 일환인 축령산 재창조 사업 추진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주민의 요구대로 사업에 조기 착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의 미래인 축령산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힐링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해 우리 장성도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노령산맥권 사업에 적극 협력하면서, 축령산이 대한민국 대표 치유관광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의왕 지역화폐 판매액 10억 돌파 '인기'

가맹점 1290곳, 환전액 4.3억 마케터 활용 홍보 등 성과 발휘

발행한 지 한 달 보름여밖에 안 된 '의왕사랑 상품권'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3일 경기도와 의왕시에 따르면 발행 36일째인 지난 2월 27일 기준 가맹점은 1,290곳으로, 의왕 지역 전체 소상공인의 21% 가량등록했다. 판매액도 10억 3,680만원으로 앞서 1월 15일 발행한 상품권 발행액 30억 원의 34.56%에 달했다.

지역 화폐의 실제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전액도 4억3150여만 원을 기록, 판매액 대비 41.62%를 기록했다. 이처럼 의왕사랑 상품권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상품권 발행 전 의왕시의 전략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왕시는 올해 1월 상품권 발행에 앞



김상돈 의왕시장이 '의왕사랑 상품권'을 농협지점의 지역화폐 발행기념식에서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

서 지난해 10~12월 사이 가맹점을 집중 모집했다. 이를 위해 '의왕사랑 마케터' 16명을 채용해 점포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지역 화폐인 의왕사랑 상품권의 이점과 사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그 결과 12월 6일 1천여 가맹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이에 힘입어 3월 중 추가로 마케터 4명을 채용,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로 확보해나가는 한편 기존 가맹점 관리도 함께 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사랑 상품권은 5천원 권과 1만원 권 두 가지가 있으며, 의왕 지역 내 농협 13곳에서 판매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4월 중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 수단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예산을 교부 받으면 이를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수당은 분기별로 25만 원, 산후조리비는 1회 50만 원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으로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자금이 역외유출 방지로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의왕사랑상품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ey@

노후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 교체비 지원

광주광역시 LPG 신차로 교체를 희망하는 노후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6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광주시는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2019년 노후 경유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 시 차량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1대당 500만원 씩 총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4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되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다. 폐차 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차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개인, 법인, 비영리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올 예산 5.7억원 투입 1대당 500만원 총 114대 대상

신청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선정은 자가용운송허가를 받은 차량만료 시점이 가까운 차량, 차령(생년월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저공해화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